

# 새로운 조경수 60

## 아왜나무



김사일

전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환경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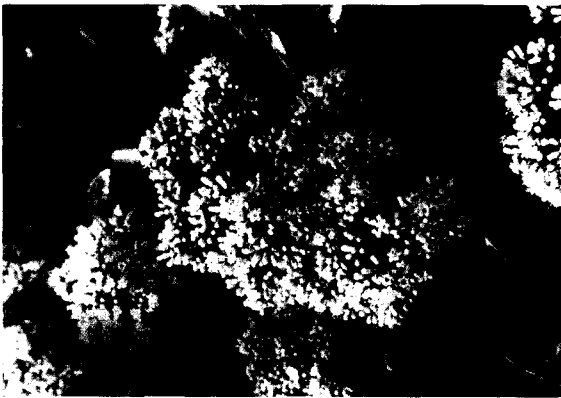
### 종류와 생육특성

아왜나무는 인동덩굴과(Caprifoliaceae) 가막살나무속(Viburnum)에 속하는 상록활엽수소교목으로 수고 10m 정도 자라며, 지표면과 밑부분에서 많은 줄기와 가지가 발생하여 떨기를 형성한다. 아왜나무는 변종도 품종도 없는 단 한종뿐이며, 내한력(耐寒力)이 약해서 우리나라 남부해안지방과 제주도를 포함한 도서지방에만 분포하고 있다.

이지역내에서는 표고 700~1,100m에서도 자라고 있고, 지리적으로는 일본의 중남부, 중국의 남부, 인도 등지에 분포하고 있으며, 내음력(耐陰力), 내염력(耐鹽力), 내공해력(耐公害力), 내화력(耐火力)이 강하고, 내습력(耐濕力), 내건력(耐乾力)은 보통이며, 생육입지는 토심이 깊고 적습(適濕)한 사질양토로서 비료분이 풍부한 곳이 적지다.

### 조경수로서의 활용가치

아왜나무는 생육적지가 우리나라 온대남부 및 난대지방으로 국한되어 있어 조경용으로 활발하게 활용되지 못하였고, 일부지역에서 생울타리, 방화림대(防火林帶) 조성용으로 활용되었고, 최근에 와서 일부 학교에서 정원수로 식재하고 있는 것이 고작이다. 그러나 아왜나무는 상록수로서 사시사철 짙은 푸른 환경을 제공해 주고, 그 푸른잎을 바탕으로 6월에는 화서의 길이가



▲ 아왜나무의 꽃과 화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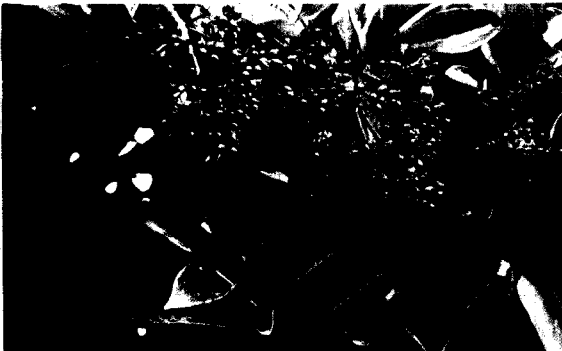
▲ 아왜나무의 개화전경

<표 1> 아왜나무의 학명

국명	학명	일본명	영명
아왜나무	<i>Viburnum awabuki</i> K. KOCH	サンゴジク	Japanese Coral Tree

표 2. 생태특성

수종명	가지와 잎	꽃과 열매	분포지역	생육입지
아왜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고 10m정도 자라는 상록 활엽수소교목</li> <li>• 어린가지와 잎자루에 붉은 빛이 돈다</li> <li>• 앞은 대생하며, 길이 6~20cm, 너비 4~8cm로 타원형임</li> <li>• 잎가장자리에 톱니가 없지만, 간혹 있는것도 있음</li> <li>• 앞은 두껍고, 표면에 광택이 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꽃은 6월에 백색으로 피</li> <li>• 화서는 원추화서(圓錐花序)로 가지 끝에 달림</li> <li>• 화관(花冠)은 깔대기모양이고, 길이 5~6mm이며, 5개로 갈라짐. 수술은 5개임</li> <li>• 열매는 핵과로 도난상타원형이며 길이 1cm 정도임.</li> <li>• 열매는 9~10월에 주홍색으로 익음</li> <li>• 1/당 종자입수는 17,000개, 1kg 당 종자입수는 35,000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 남해안과 제주도, 일본, 중국, 인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심이 깊고 적습한 사질양토로 비옥한 곳</li> </ul>



▲ 아왜나무의 익은 열매



▲ 아왜나무의 결실전경

6~20cm나 되는 큰 흰꽃송이가 나무전체를 뒤덮고, 가을에는 주홍색 열매가 덩어리로 봉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광경은 눈이 부시어 어지러울 정도로 아름답다. 그러므로 아왜나무는 조경수로서의 활용성 문제는 재론의 여지가 없는 고급수종이며 앞으로 학교, 공장단지, 공공시설부지, 아파트단지, 도로변, 공원, 도심의 하천변 등의 조경용으로 전망이 밝은 수종이다.

### 번식 및 양묘방법

아왜나무의 번식은 파종과 삽목에 의하여 번식하며, 파종에 의한 실생묘 양성은 10월에 열매가 익어서 적색에서 적자색으로 변할 무렵에 채취하여 과육(果肉)을 제거하고 물로 씻어 정선(精選)한다. 종자가 건조하면 발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기를 뺀 정도에서 직파

(추기파종)을 하든가 노천매장 또는 저온저장을 하여 두었다 이듬해 봄(4월상순경)에 꺼내어 m<sup>2</sup>당 33cc(560알) 또는 16g정도를 초과 또는 산파한다. 파종 후 보통 1개월 정도면 발아하고 발아율은 45%정도로 m<sup>2</sup>당 250본 정도가 발아하며 득묘본수 150본, 평균묘고는 14cm이며, 이듬해 봄 상체본수는 m<sup>2</sup>당 20~30본 정도로 한다. 삽목묘 양성에 있어서 삽목시기는 춘기(4월)와 하기(6~7월)로 나누어 실시하고 춘기삽목시의 삽수(插穗)는 전년지(前年枝), 하기삽목의 삽수는 당년지(當年枝=綠地)를 사용하고, 삽수의 길이는 보통 15~20cm길 이로 절단하며, 삽수의 상단부에 3~4장의 잎을 남겨두고 남겨둔 잎은 반정도 잘라준다. m<sup>2</sup>당 삽목본수는 150본 정도가 적당하고 춘기삽목시 75%, 하기삽목시 95%로 허기삽목에 있어서 발근율이 높다. **조경수**